2015년 외국 교과서 분석에 관한 검토의견서

조영준

총평

2014년에 이어 2015년에도 wiki 방식의 보고서 작성을 채택함으로써, 사업의 결과물을 효율적・효과적으로 공개하는 큰 틀을 어느 정도 궤도에 올려놓은 것으로 평가된다. 단, 2014년의 성과에 대한 wiki 방식의 보고가 2015년 1년 동안에 얼마나 활용되었는지에 대하여 정리해 둘 필요가 있다. 물리적으로 접근 가능성이 높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접근이 얼마나 이루어지는지의 여부는 별개의 문제이기 때문이다(현재 한국문화교류센터 홈페이지에서 CefiaWiki로 접속할 수 있는 링크가 제공되고 있는지, 지난 1년간 방문자 정보는 어떻게 되는지 등등).

전반적으로 번역이 부실하다고 판단된다. 교과서의 내용을 간략히 검토하는 수준이라고 하더라도, 아마추어 수준의 번역으로는 향후 대국민 공개 과정에서 문제가 될 수 있다. 기본적인 문장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많고, 한국에서 사용하지 않는 용어로 옮겨 놓은 경우가 눈에 띄곤 한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기 위해서 여러 번 다시 읽어도 도무지 이해되지 않는 문장이 많다. 특정 국가의 교과서에 대한 번역문은 인터넷 번역기보다 조금 나은 수준인 경우도 있다. (번역 관련 문제는 2014년의 분석에 대해서도 지적한 바 있음.)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습니다" 식의 상대높임법으로 작성한 사례가 보이는데, "-이다"와 같이 중립적이고 일관된 표현으로 대체할 필요가 있다.

"시정"보다는 "개선"에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면, 각 국가별 교과서에서 추천 또는 권장할 만한 사례를 모아 별도로 소개하는 전략을 취할 필요도 있다. 한국전쟁, 기적적 경제성장, 한류 등의 천편일률적인 서술보다 한국에 대한 흥미를 더 많이 유발할 수 있는 소재라고 판단되는 것을 외국인의 시선 속에서 발견하는 방식이다. 이번 검토 과정에서 주목할 만했던 사례로는, 반기문 총장의 일생, 인천 송도의 도시 시스템, 청계천 복원, 남한과 북한의 평균 신장 차이 등을 들 수 있겠다.

이하에서는 각국별 교과서 분석 결과에 대하여 주로 경제 분야를 위주로 검토한 결과를 제시한다.

라오스

"교과서:라오스:ພູມສາດ **(지리:아시아)"**에서 "한국은 신산업국가(NIC, Newly Industry Countries)이다"라는 표현이 보이는데, NIC는 "Newly Industrializing Countries"의 약자이며, 학계에서 통상적으로 "신흥공업국가"로 번역하므로, 수정을 요한다.

"한국은 산업 기계 산업이 우수한 국가이다"라는 표현에는 번역 상의 문제가 있는 듯하며, 중복 등장하는 "산업"이라는 표현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

"높은 과학수준을 가진 숙련된 노동자들"이라는 표현에서 "높은 과학수준"이라는 번역은 부적절한 듯하며, "높은 기술수준"이라고 해야 하는 것이 아닌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

"남한은 지하 자원의 호수"라는 표현이 보이는데, 무슨 의미인지 알기 어렵다.

"수출 생산에 세계 10 대 국가에 꼽히고 있다"는 표현에서, "수출 생산"이라는 말이 무슨 의미인지 알 수 없다.

"라면, 제약, 전기, 섬유 등의 소비재 생산"이라고 하였는데, 전기도 소비재라고 할 수 있는지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북한, 중국, 일본, 미국, 그리고 유럽 등과도 무역을 하고 있다"는 표현은 오해의 소지가 있으므로, 무역 규모에 따라 순서를 재정렬하여 서술할 필요가 있다.

"교과서:라오스:ພູມສາດ **(지리 : 라오스와 아시아)"**의 검토 의견 중에 "대한민국 경제의 가장 중요한 산업 중에 하나는 제조업이다"라는 표현이 있는데, 현재의 산업 구조에서 비중이 가장 큰 것은 서비스업이므로, 다시 검토할 필요가 있다.

또한 "산업 중에 하나"는 "산업 중의 하나"로 수정해야 한다.

"교과서:라오스:ປະຫວັດສາດ **(역사:20세기 이후)"**에서 "현재 대한민국은 신산업국가 (NIC, New Industrialized Country) 로서"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과거 대한민국은 신흥공업국 (NIC, Newly Industrialized Country) 중의 하나로 분류되었으며"로 정정할 필요가 있다.

<u>동티모르</u>

"교과서:동티모르:História 12º ano de escolaridade :Manyel do Aluno (역사 12학년)"에서 "값싼 인건비에 힘입어 낮은 가격에 소비재를 수출함으로써 세계적인 무역국가로 전환"이라는 표현이 보이는데, 한국의 경우에는 중화학공업화를 중심으로 한 수출지향공업화 정책에 대한 설명으로 대체할 필요가 있다.

<u>캄보디아</u>

2015년의 분석 대상이 아님.

<u>인도네시아</u>

2015년의 분석 대상이 아님.

<u>싱가포르</u>

"교과서:싱가포르:지리 1"에서 "미국 뉴옥 도시"의 "뉴옥"은 오타인 듯하므로 수정을 요한다.

"한국 서울은 33개 풍부한 문화를 소유하고 있는 국가"라는 표현은 어색한데, 번역상의 문제인지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교과서:싱가포르:역사 2"에서 "일본 농부를 위한 토지 압수"라는 표현은 객관적이지 않으므로, "토지조사사업"이라는 공식 표현으로 바꿀 필요가 있다.

"교과서:싱가포르:역사 3"에서 한국전쟁에 관한 전반적 내용에 대하여 검토 의견이 전혀 없는데, 가능하다면 전문가의 재검토를 요한다. 이 점은 다른 국가의 교과서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이다.

<u>대만</u>

2015년의 분석 대상이 아님.

<u>홍콩</u>

의견 없음.

<u>우즈베키스탄</u>

"교과서:우즈베키스탄:Экономическая и социальная география мира 9(세계 경제 사회 지리9)"에서 "시간이 지나자 한국, 멕시코와 러시아가 아세안 회원국이 되었다"고 표현되어 있는데, 한국, 멕시코, 러시아 등은 아세안 회원국이 아니므로, 수정이 필요하다.

"세 번째 그룹에 남한, 대만, 싱가포르, 홍콩이 들어간다. 이 국가들은 최근 10-15년 동안"이라는 표현에서 기간에 대한 서술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1970-80년대를 가리키는 것이라면, 잘못된 정보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현재 남한은 원자력에너지 생산으로 세계에서 9위, 철강생산 - 8위, 조선업 - 2위, 전자기계 - 5위, 전자제품생산 - 6위를 차지"라는 표현이 보이는데, 낡은 정보인 듯하다. 최신 정보로 대체할 필요가 있겠다.

"남한 산업 국가이며 산업이 경제 가장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라는 표현이 보이는데, 무슨 말인지 알 수 없다.

"GDP에 공업이 60.1%, 농업 3%, 서비스업은 34.9%를 차지"라는 표현은 부적절하며, 공업과 서비스업의 비중이 뒤바뀐 듯한데, 최신 정보를 확인하여 대체할 필요가 있다.

대도시 인구를 "서울(10백만명), 대구(2.4백만명), 부산(1.5백만명)"이라고 소개하면서, 다른 곳에서는 "인구 백만명 이상인 도시 : 22위 서울, 83위 부산, 135위 대구"라고 설명하고 있다. 부산과 대구가 뒤바뀐 것이 아닌지 확인하여 수정할 필요가 있다.

"교과서:우즈베키스탄:Всемирная история 8(세계사 8)"에서 "1953년에 한국과 중국의 통합군은 평양과 서울을 해방시켰다"라는 표현의 "1953년"은 "1593"년의 오타인 듯.

"쉽지 않은 국내 상황은 1960년대 초 기근으로 인하여 악화되었다"라는 표현에서 "1960년대" 역시 "1860년대"의 오타인 듯.

카자흐스탄

2015년의 분석 대상이 아님.

키르기스스탄

2015년의 분석 대상이 아님.

아제르바이잔

"교과서:아제르바이잔:Новейшая история 11 (Çaşıoğlu)"에서 "1963년 헌법이 채택되므로 제2공화국 시대(1963-1972)가 시작되었다"라는 표현이 보이는데, "제2공화국"이 아니라 "제3공화국"임. "1972년 헌법의 개정으로 제2공화국이 붕괴되었다"라는 설명도 마찬가지.

"교과서:아제르바이잔:Ən yeni tarix 11 (Çaşıoğlu)"에서도 같은 문제가 있음.

"교과서:아제르바이잔:Coğrafiya 9: Dünyanın iqtisadi və sosial coğrafiyası (Çaşıoğlu)"에서 "한국에서 보리, 밀, 옥수수, 담배, 사과, 일본 감, 오렌지, 귤, 포도 등도 재배된다"라고 하였는데, "일본 감"이 어떤 것인지 불분명하다. 단순히 번역 상의 문제인지?

"교과서:아제르바이잔:География 9, Экономическая и социальная география мира (Aspoliqraf)"에서도 같은 문제가 있음.

"교과서:아제르바이잔:Atlas 9, Dünyanın iqtisadi və sosial coğrafiyası (BKF(Bakı Kartoqrafiya Fabriki))"에서 "있다고 나타남급함"이라는 표현은 어색하므로, 확인 요망.

"바다 관광지'로 표시되어"라는 표현에서 "바다 관광지"의 왼쪽에 작은 따옴표가 누락되어 있음.

이란

2015년의 분석 대상이 아님.

이스라엘

2015년의 분석 대상이 아님.

케냐

2015년의 분석 대상이 아님.

카메룬

2015년의 분석 대상이 아님.

가봉

2015년의 분석 대상이 아님.

남아프리카공화국

2015년의 분석 대상이 아님.

가나

"교과서:가나:My book of geography of Africa and world human geography"에서 "한국의 조선 산업은 부산의 해안지역에 위치한다. 중요 조선 산업 도시는 울산이다"라고 하였는데, "울산"은 "울산 및 거제"로 수정되어야 할 것임.

"북한의 조선 산업은 국내 자원과 해외에서 수입된 천연자원에 의존한다"라는 표현이 보이는데, 한국의 조선 산업에 대한 설명에 왜 "북한"이 등장하는지?

"토지를 파해지고 매립할 수 있다"에서 "파해지고"는 "파헤치고"인지?

"일본, 미국, 영국의 조선 산업과 경쟁에 직면"이라는 표현에서 "일본" 앞에 "중국"을 넣어야 할 것임. 현재 중국이 가장 강력한 경쟁 상대이기 때문임.

"교과서:가나:Africa's Long Road to Development"에서 "한국의 인적 자원은 교육에 많은 투자를 통해 개발되었다"는 표현은 어색함.

모잠비크

"교과서:모잠비크:Ciências Sociais 7ª - O mundo em que vivemos(사회과학 7ª - 우리가 사는 세계)"에서 "동시에 사회적인 심각한 문제로 늦는 국가들도 있다"라는 표현은 무슨 말인지 모르겠음.

"우라늄을 매장되어 있다"라는 표현도 어색함.

"교과서:모잠비크:Saber História 9(역사를 알다 9)"에서 목차의 "인문학의 부활"이 "문예부흥"을 가리키는 것이라면, 번역의 오류에 해당함. "문예부흥" 또는 "르네상스"로 바꾸어야 할 듯.

<u>탄자니아</u>

"교과서:탄자니아:Advanced Learner's History Forms 5&6"에서 "한반도는 남한과 북한으로 분리되었다"라는 표현이 "핵무장경쟁과 쿠바 미사일 위기"에 포함되어 있는데, 서술의 맥락상 문제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남한과 북한으로 분리된 것은 해방 직후이기 때문이다.

"교과서:탄자니아:Advanced Level History Part 2 Alive"에서 "1950년대에 베트남과 한국에서 내전과 충돌이 발생했다"는 표현은 오류이다. 베트남 전쟁은 1960년대에 일어났기 때문.

"유엔은 처음으로 승리를 거두었으며, 공산주의자들은 제2차 세계대전 후 처음으로 패배했다"고 되어 있는데, 한국전쟁은 휴전이므로 승자와 패자가 있을 수 없음.

<u>모로코</u>

"교과서:모로코:지리(알-마싸르)"에서 "경제 개발 모델이며 남부국가의 하나가 됨"이라는 표현의 "남부국가"는 "북부국가"로 수정되어야 하는 것 아닌지?

"1999년 이후 행정기관이 재정경제부에서 산업자원부로 이전되었다"라는 표현은 부적절함. 산업자원부는 통상산업부가 개편된 것이며,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는 재정경제원이 재편된 것임.

"한국과 타이완은 계획경제를 실시했다"는 표현이 있는데, "계획경제"는 사회주의 국가의 것이므로, 여기에서는 "경제계획" 등의 다른 표현으로 대체해야 할 것임. 번역상의 문제인 듯함.

<u>르완다</u>

의견 없음.

<u>콩고민주공화국</u>

"교과서:콩고:Histoire, 6ème année secondaire"에서 "150년 6월 25일"의 "150년"은 "1950년"으로 수정 요망.

러시아

"교과서:러시아:Всеобщая история, 11(세계사 11)"의 검토 의견 중에 "한국의 경제발전의 주된 원인을 일본의 기간산업과 미국의 지원으로 이루어 진것이라고 서술하는 것은 올바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식민지근대론에 입각한 서술"이라는 평가가 있는데, 객관적 의견이라고 보기 어렵다. 식민지 근대화론은 1910-1945년간에 일본이 한국에 대해 투자한 것과 관련된 것이고, 이 교과서에서의 서술은 1960-1970년대에 미국 또는 일본으로부터 유입된 자본과 관련된 것이기 때문이다. 보다 신중하고 엄밀한 평가가 필요하다.

"교과서:러시아:История : конец XIX - начало XXI века(19-21세기 역사)"의 검토 의견에서도 동일한 문제가 보인다.

번역문 중에서 "신흥공업국은 1960-1970년대 경제적 성공을 거둔 동남아시아 국가"라는 표현은 부적절하다. 한국은 동북아시아 국가이기 때문.

우크라이나

"교과서:우크라이나:Географія 10(지리 10학년)"에서 한국의 대표적 다국적 기업으로서 '현대', '삼성', 'LG', '대우'를 들고 있는데, '대우'를 'SK'로 대체하는 편이 좋겠음.

"한국은 주요 산업발전동력으로서 가정용 전자제품 제조산업을 앞세우고 있다"는 서술은 시대에 뒤떨어진 것으로서, 최신 정보로 대체될 필요가 있다.

"세계적으로 조선산업이 발달한 국가는 한국, 일본이며"라는 표현은 부적절하다. 현재 세계 조선산업의 수주량 1위 국가는 중국임.

"가장 중요한 한구는 상해항(세계에서 가장 큰 항구), 대련(중국), 요코하마, 카와사키, 도쿄, 오사카항(일본)"이라고만 되어 있는데, 한국의 인천항, 부산항 등도 포함시켜야 하는 것 아닌지 검토할 필요가 있음.

"교과서:우크라이나:Світова економіка (세계경제)"에서 "한국, 타이완, 싱가포르, 홍콩은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을 통틀어 70년대부터 높은 경제성장을 이루고 있는 동남아시아의 대표적인 국가"라고 하였는데, 한국은 동남아시아 국가가 아님.

조지아

"교과서:조지아:ისტორია 12 :მოსწავლის წიგნი **(역사 12)"**에서 "남한에는 독재 대통령 정권(Autocratic presidential regime- 대통령의 무제한 단독 정권)이 다스렸다"라는 서술은 부적절함. 처음부터 독재는 아니었으며, 무제한 단독 정권이라는 말도 사실과 다름.

"교과서:조지아:მსოფლიოს გეოგრაფია **11** :მოსწავლის წიგნი **(지리 11학년)"**에서 "사니오"는 "산요"로 수정할 것. 일본 기업 "SANYO"는 "SA-NYO"가 아니라 "SAN-YO"임.

슬로베니아

2015년의 분석 대상이 아님.

벨라루스

2015년의 분석 대상이 아님.

루마니아

"교과서:루마니아:Istoria :Manual pentru clasa a XII-a(Editura Gimnasium)"에서 서술의 맥락상 "한국은 전세계 선박 건조의 1/3을 차지"라는 표현은 부적절하다. 세계에서 선박을 가장 많이 건조하는 국가는 중국이기 때문이다.

"교과서:루마니아:Geografie, continentelor extraeuropene :Manual pentru clasa a VII-a(Corint)"에서 "선박과 유조선 제조 산업(일본에 이어 세계 2위)"은 "선박과 유조선 제조 산업(중국에 이어 세계 2위)"로 수정될 필요가 있다.

"교과서:루마니아:Geografie :Manual pentru clasa a 7-a(All Eductional)"에서 "삼성, 대우, 현대, 골드스타 같은 회사는 매우 잘 알려져 있다"라는 서술은 낡은 것이다. "삼성, 현대, SK, LG"로 바꾸어야 할 듯.

"효율적인 전략(한국은 우선적으로 농업과 세계 시장의 수요에 부합하는 산업을 발전시켰다)"라는 표현은 부적절하다. 농업을 우선적으로 발전시켰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기 때문이다.

"한국은 소비재 산업을 발전시키면서 "작업장 국가"가 되고 있다"라는 표현은 현재형으로 되어 있는데, 번역상의 오류인 듯. 과거형으로 바꾸어야 할 듯.

"교과서:루마니아:Geografie, geografie umană :Manual pentru clasa a X-a(Corint)"에서 "주요 항구도시들(2010년 화물 운송량에 따라): 부산항공: 물양(수백만톤)=262 상업용 선박 생산국(2003)의 주요 용적률: 한국; 용적률(수백만톤)=25; 세계 선박의 지중=3.2 (img- pg. 77,79)" 부분은 무슨 말인지 알 수 없음.

"교과서:루마니아:Geografie :Manual pentru clasa a XII-a(Humanitas Educaţional-2011)"에서 서술의 맥락상 "한국은 전세계 선박 건조의 1/3을 차지"라는 표현은 부적절하다. 세계에서 선박을 가장 많이 건조하는 국가는 중국이기 때문이다.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1. 분석 대상 교과서 목록"에서 수집 연도 및 분석 연도가 들어가야 할 자리에 출판 연도가 들어가 있음. 일괄 수정 요망.

"교과서: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역사-8 4"에서 "남한은 박정희를 필두로 경제 발전을 노력"이라는 표현은 부적절함. 이승만 정권 때부터 경제 발전을 위한 노력은 있었음.

<u>몬테네그로</u>

"교과서:몬테네그로:지리-8"에서 "신생 산업국가(대한민국 공화국과 싱가포르 등)"의 "공화국"은 삭제 요망.

<u>마케도니아</u>

의견 없음.

<u>영국</u>

2015년의 분석 대상이 아님.

<u>프랑스</u>

"교과서:프랑스:Histoire Géographie Éducation civique, 4e"에서 "한국에 한국은 '동남아시아'로 분류되었으며"라는 표현에서 "한국에"는 제외해야 함. 또한 한국은 '동남아시아' 국가가 아니므로 수정이 필요함.

"교과서:프랑스:Histoire géographie Éducation civique, 4e -Nathan"에서 "삼성은 세계 2위의 휴대폰 제조사"라는 표현은 재검토가 필요함. 최근까지 세계 1위였음.

"교과서:프랑스:Histoire, 1re ES/L/S :Questions pour comprendre le XXe siècle"에서 "김정일은 공산주의 왕조 창시자의 손자"라는 표현이 보이는데, "손자"가 아니라 "아들"임.

"교과서:프랑스:Histoire-Géographie, Tle S"에서 여러 차례 표현된 "비정구기구"는 NGO를 가리키는 것인지? 그렇다면 "비정부기구"로 수정해야 함.

<u>오스트리아</u>

2015년의 분석 대상이 아님.

<u>이탈리아</u>

2015년의 분석 대상이 아님.

스페인

2015년의 분석 대상이 아님.

포르투갈

의견 없음.

독일

"1. 분석 대상 교과서 목록"에서 "교과서:독일:Diercke Geographie 7/8"의 분석 연도가 2014년이라고 되어 있는데, 2015년으로 수정 요망.

"교과서:독일:Diercke Spezial, Ostasien"에서 "남한의 경제적 발전에 간한 출처텍스트"의 "간한"을 "관한"으로 수정 요망.

네덜란드

의견 없음.

아일랜드

의견 없음.

벨기에

의견 없음.

룩셈부르크

의견 없음.

에스토니아

"교과서:에스토니아: Majandusõpik. gümnaasiumile"에서 "시장경제의 확장 일본, 대한민국, 홍콩, 싱가포르, 대만 등 여러 아시아 국가들은 경제 성장을 더욱 촉진시키기 위해 1970대와 1980년대에 시장경제모델을 도입하기 시작했다. 또한 대부분의 국가들이 더욱 민주화되었다. 빠른 경제 성장은 세계적인 주목을 받게 되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경제성장에 관해서 더욱 더 시장경제에 의존하게 되었다. 예산이 감소될 때마다, 국유재산은 사유재산화되었고 개방된 시장은

국내뿐만 아니라 세계 속에서 경쟁하게 되었다."라는 설명은 부적절하다. 한국의 경우, 시장경제 모델의 도입과 민주화는 별개였으므로, 경제성장이 이루어진 다음에 민주화되었다고 설명해야 한다. 또한 경제성장 과정에서는 정부의 개입이 강했기 때문에 "더욱 더 시장경제에 의존"했다고 표현해서는 곤란하다. "국유재산의 사유재산화"라는 것도 근거가 없다.

스웨덴

"1. 분석 대상 교과서 목록"에서 분석 연도가 2009년, 2014년 등으로 된 것은 2015년으로 수정해야 함.

노르웨이

2015년의 분석 대상이 아님.

아이슬란드

의견 없음.

미국

"교과서:미국:World History:Patterns of Interaction"에서 "일본은 일본 기업가들이 한국에서 사업을 시작할 것을 권장하였지만, 한국인들이 그들의 나라에서 사업을 하는 것을 금지하였다"라는 서술은 객관성이 결여되어 있음. "한국인들이 사업을 하는 것을 금지했다"는 것은 회사령과 관계된 듯한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1910-1920년 동안에만 해당되는 것이며, 회사령이 폐지되고 나서는 식민지기에 걸쳐 조선인에 의한 회사 설립이 계속 증가했음. 객관적인 서술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한국 바로 알리기"의 역효과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를 요함.

"교과서:미국:The cultural landscape"에서 "정기 시장: 한국. 한국은 음력달에 2번 15일장이 열린다."에 대한 검토 의견이 적절하지 않음. 이 교과서가 "역사"가 아닌 "지리" 교과서이고, 또 현대 한국에서 5일장이 열리는 사례는 극히 제한적이기 때문. 한국에서 보편화된 정기시장으로 꼽을 수 있는 것은 전국의 아파트단지마다 열리는 "요일 장터" 정도일 것임.

캐나다

2015년의 분석 대상이 아님.

에콰도르

2015년의 분석 대상이 아님.

콜롬비아

2015년의 분석 대상이 아님.

파라과이

2015년의 분석 대상이 아님.

우루과이

2015년의 분석 대상이 아님.

코스타리카

"교과서:코스타리카:Con Vivencias 10. Geografía e Historia Mundial"에서 "1972년부터 그가 죽은 1988년까지 김일성은 북한의 지도자"라는 표현은 부적절하다. 기간의 수정이 필요함.

"교과서:코스타리카:Estudios Sociales 10, Un enfoque Práctico"에서 "2010년, 남한 잠수함의 침몰"의 "잠수함"은 "군함"으로 수정해야 함.

"한국과 파키스탄의 '악의 축'형성"에서 "한국"은 "북한"으로 수정해야 함.

브라질

"교과서:브라질:O livro dos negócios"에서 간략분석의 "Penguin Random House ㅐ서"에 오타가 있음.

"교과서:브라질:Coreia do sul: políticas industriais, comerciais e de investimentos"에 대한 번역은 발췌 형식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구체적인 사실 관계에서 오류가 있는지는 확인할 수 없음.

아르헨티나

의견 없음.

수리남

"교과서:수리남:Suriname in geografisch brandpunt(지리적 중심지, 수리남)"에서 "그들은 현재 새로운 산업국가로 불린다 (NIC 국가들)"라는 표현은 부적절하다. NICs라는 별명은 과거의 것이며, 현재에도 유효한 것은 아님.

호주

의견 없음.

<u>뉴질랜드</u>

2015년의 분석 대상이 아님.